한라시론

제주도 이용료를 받자

문 영 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이상 기후의 현상으로 봐야할 가을장마가 끝난 맑은 날, 해안도로 커피숍 유리창 넘어 보이는 바닷물 색이 그야말로 쪽빛이다. 겉으로 보이는 쪽빛은 참 아름다운데 그 속도 깨끗한지는 알 수 없는 일이며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면 제주바다가 더 깨끗해질까? 얼마 전 집으로 배달된 상·하수도 요금 청구서를 본 기억이 났다. 도에서는 근래 농지 평가액도 대폭 인상하더니 이제 하수도 요금을 35% 인상 하는 것에 대해 인상률이 높다는 감각이 없어진 것 같다. 인상 이유는 현재 상·하수도 요금은 생산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 개선 없이는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공기업의 만성적자를 해소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해 인상한다고 한다. 하수도 요금은 소비자 물가 조사 대상이 아니라서 대폭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몇 년 전 보도에 의하면 정화 처리가 덜된 하수가 바다로 배출돼 청정제주의 바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바도 있었다. 최근 도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70만명에 이르고 있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도 2016년 1585만명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되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1431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관광객이 평균 1박2일 일정으로 제주에 머문다고 가정할 경우 관광객이 배출하는 하수의 추정량도 도전체 배출량의 10% 이상이 될 것이다. 즉 제주도의 하수는 제주도민들만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도 생산에 크게 기여 한다고 봐야 한다. 상·하수도는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 도민들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도민을 상대로 한 하수도 요금의 인상폭이 너무 큰 것 같고, 앞으로 쓰레기 처리비용도 증가돼 이 또한 대폭 인상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나라로 관광객이 많은 나라다. 이 나라의 특이한 점은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다른 도시에 가서 호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숙박비 외에 속칭 '도시세'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고 한다. 금액은 도시에 따라 달라서 하루에 4~7유로를 내야하는데, 이것은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사용료의 경우 기차역 구내도 0.8유로, 관광지는 2유로를 받는 유로 화장실로 운영해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에 공짜가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예산집행 잔액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구조상 85%를 집행하면 많이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며 15% 정도의 집행 잔액은 매년 발생될 것이고 그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이다. 지금도 예산 투입이 많이 되고 있겠지만 상·하수도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 투입하는 것도 도민 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며, 관광지의 무료 화장실을 유료화 하고 도민을 제외한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제주도의 자연경관 이용 요금을 받아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등 아름다운 제주도를 유지 보존 하는데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사설

최대 현안조차 의견 도출 못하는 도의회

제주 제2공항 문제로 대의기관까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공론화를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이 이어지는 등 파열음이 적잖습니다. 이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31일 김태석 의장 등이 공동 발의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도민공론화 특위 구성 여부는 1차 관문인 운영위원회의 처리 결과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거나(사실상 부결) 심사보류, 상임위 의결없이 본회의 부의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도민공론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집행부와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근 제2공항 도민공론화 문제로 벌어지고 있는 도의회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알다시피 제2공항은 제주의 최대 현안입니다. 국책사업을 떠나 제주의 미래가 달린 일이 아닙니까. 문제는 제주사회가 제2공항 때문에 점점 더 심각한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때문에 도민공론화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카드나 다름 없습니다. 공론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도 있잖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원전 공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도의회의 행태가 안타까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론화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의기관으로서 현안과 관련 하나로 의견을 모으는 정치력조차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적한 제주 현안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의회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 의지 있나

제주지역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유능한 인재영입 필요성과, 공감대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게 심사보류 이유입니다. 하지만 궁색한 변명으로만 들립니다. 부산시를 비롯 다른 지역도 논란이 있었지만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려는 분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소득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임금 격차일 것입니다. 29일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평균 임금(172만9000원)은 정규직(316만5000원)보다 143만6000원이 적습니다. 지난해(136만5000원)보다 늘어나는 등 매년 확대추세입니다.

제주지역 임금 사정은 열악합니다. 올 4월 기준 도내 상용근로자(5인 이상 사업체 기준)의 한 달 1인당 실질 임금은 273만7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울산 419만6000원과 비교해 145만9000원 차이가 납니다. 올해 제주지역 생활임금 월 급여는 202만7300원으로 연봉이 2432만원 선입니다. 이보다 못받는 비정규직도 많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도내 공공기관 임원 연봉은 전국 상위 수준입니다. 억대 연봉을 훌쩍 넘는 공기관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이들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제주도가 2018년도 도내 공공기관 실적 평가 결과 '가' 등급은 없었습니다. 제대로 일은 않고 지나치게 연봉을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고임금 연봉체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의회가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에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편집국 25시

헌책에 대한 고민

박 소 정
편집부 기자
cosorong@ihalla.com

삼일 전, 지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보물찾기를 하는 느낌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엔 설렘이 가득했다. 대학 내 작은도서관에서 오래된 책을 정리하다 누군가 책 속에 넣어둔 추억의 물건을 여러 개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낡고 색이 바랜 편지, 승차권, 우표 등 옛 물건들에 문화 감수성이 피어오른다고 했다. 나도 헌책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오래된 책이 수북히 쌓인 헌책방은 누군가의 추억이 서린 책을 통해 문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여겨왔다. 쇠락해가는 헌책방들의 소식이 들릴때면 마음이 아려오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서일까. 요 몇년 사이 헌책방을 살리기 위해 벌어지는 실험들이 그저 반갑기만 하다. 서울 청계천 헌책방거리, 부산 보수동 책방골목, 전주 동문 헌책방 거리, 광주 계림동 헌책방 거리 등 전국에서 헌책방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건 민간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잠실철교 아래에 비어있던 물류창고의 활용방안을 7년간 고민한 끝에 공공헌책방을 만들었다. '서울 책 보고'는 청계천 헌책방 거리를 지켜온 25개 헌책방이 함께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방문객이 13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제주에서도 헌책의 가치를 알리려는 움직임이 꾸준하다.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는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헌책방인 책밭서점과 함께 매년 11월이 되면 학교 내에서 '북페어'를 열고 있다. 출판문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헌책방에서 직접 고른 1000권이 넘는 책을 전시하고 판매하는데, 벌써 10년째라고 한다. 탐나라공화국도 제주헌책도서관을 만들어 헌책페어를 진행하고 있다. 헌책의 가치, 그 공간을 살리기 위한 고민들이 점점 깊어간다. 간과해서는 안될 과제임이 분명하다.

뉴스-in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회서 혼쭐

역할 수행 의지 적극 표명

○…김성언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철학, 소신, 청문회 준비부족 등 잇단 지적에 혼쭐.

3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예정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가치관, 전문성에 대해 질의.

김 예정자는 "벼락치기 공부하겠다·빨리 배우고 실천하겠다·모르는 것은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다"며 부지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 오은지기자

행정시 내년 예산 10% 감액

○…제주시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올해보다 10% 감액하기로 결정해 눈길.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양 행정시에 올해보다 10% 줄이라는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보냄에 따라 제주시는 각 실국에 올해 예산보다 감액 편성해 제출하라고 주문.

한 공직자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등 세수가 줄어 가용재원이 모자라자 이같은 결정을 한 것 같다"며 "제주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한탄. 고대로기자

토지거래허가 이행명령 요구

○…서귀포시가 2017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648필지에 대해 허가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여 106필지에 대해 이행명령서를 발송.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토지에 대해 허가목적대로 사용토록 하기 위한 조치로, 주거용 24필지 등이 포함.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 이행기간 부여후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용의무 이행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설명. 문미숙기자

부 고

현길호(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 아버지 **연주현공 만옥(萬玉, 향년 85세)**께서 서기 2019년 10월 29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10월 31일(목)
- ▶발인일시: 2019년 11월 1일(금) 오전 7시
- ▶발인장소: 남원의례회관 (서귀포시 남원읍 서의로 26)
- ▶장 지: 한남리 선영

부인 고매월
아들 현길호 달호 정호 동호　며느리 오영한 양봉심 정미선
딸 현영희 영미 영선 영란　사위 양상길 신봉주 최영태 김용인
손 여정 서정 채원 청훈 석훈 소정 장훈 지연 지원　외손 세진 인애 인정 의정

※ 연락처 : 현길호 010-3075-1095
현달호 010-2880-3949
현정호 010-3076-0720
현동호 010-9512-2969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부씨 대옥(향년 103세)**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0월 31일

아들 김우찬 우헌 우근　며느리 김정희 부향순 문영순 강금선
딸 김명진 명순 명수 명숙　사위 조문석 백의통 고경수 부영석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수일**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0월 31일

부인 강숙녀
아들 김명식
딸 김경미 상미　사위 김성보 김동현

故 김수일라이온 중문라이온스클럽장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고부이씨 원춘(향년 9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0월 31일

아들 강상훈 대훈 기훈 지훈　며느리 정계순 강복심 현순여 장은미
딸 강영숙 영순 영희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콤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제주도 토지 매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평화로변
•생산관리지역 목장용지
•494,244㎡(분할매매 가능)
•2차선 도로접 시멘트 도로접
기타문의 전화요망
☎ 010-5110-5660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리모델링
辛(신)一(일)祚(조)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010.7599.6234